



환경 부문과 관련된 몇 가지 소재들

1. IPCC의 6차 보고서 발표

- 전일 IPCC의 기후변화 보고서가 발표. 해당 보고서는 11월 열릴 COP26 정책 기조와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보고서에는 기존에 비해 심각해진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시
- COP26에서 각 국 정부들에게 최근까지의 노력에 비해 더 강한 정책 강도가 강제될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2. 독일 녹색당의 선전

- 9월 말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독일에서 군소정당이었던 녹색당의 선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 현재 여론조사 결과 19%의 지지율로 전체 정당들 가운데서 2위를 기록하고 있어 녹색당의 정책 영향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 녹색당의 정책기조가 전통적인 진보 성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연정 스펙트럼이 넓고 환경정책 강화 및 재정지출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음

3. ARK ETF와 ICLN ETF의 차이점

- 지난 해 미국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ETF 들로 ARK 시리즈와 ICLN을 꼽을 수 있음
- 다만 최근 두 ETF의 자금 유출입 동향을 보면 ARK 시리즈보다는 ICLN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되고 있음
- 환경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이 강화되고 있는 데에는 정책 측면에서의 확산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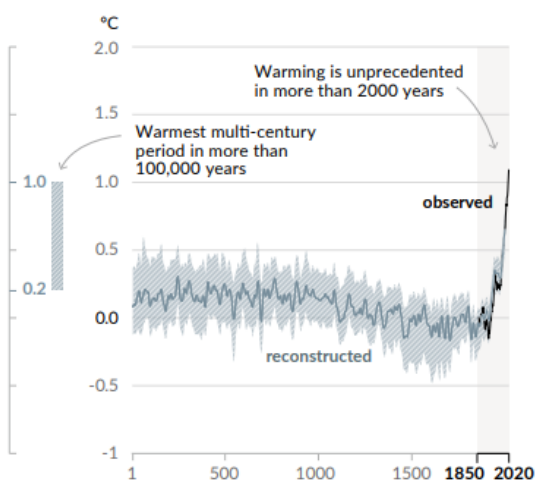
1. IPCC의 6차 보고서 발표

전일 UN IPCC 기후변화 보고서가 발표됐다. IPCC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설립한 협의체이다. IPCC는 90년 발간한 1차 보고서(FAR, 지구 온난화가 사실이라는 점과 온실가스와의 상관관계를 명시)이후 5~7년 주기로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한다. 기후변화 상황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전망 등이 담기는 이 보고서는 단순한 정기 자료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95년 발표된 2차 보고서(SAR)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공식화 해 교토의정서 채택의 근거가 됐고, 14년 5차 보고서(AR5)는 파리기후협약 도출의 근거로 작용했다. 즉, 글로벌 정책 대응의 변곡점을 만들어 주는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올해 11월에는 COP26(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결국 전일의 보고서는 연말 수립될 글로벌 차원의 환경 정책 강도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후 변화가 인간의 행동때문에 기존 전망에 비해 훨씬 가속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면 이번 보고서에는 21~40년 중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 이 시기는 기존 추산 시점인 30~52년보다 10년 앞당겨진 것이다. 결국 COP26에서 각 국 정부들에게 최근까지의 움직임에 비해서도 강한 정책 강도가 강제될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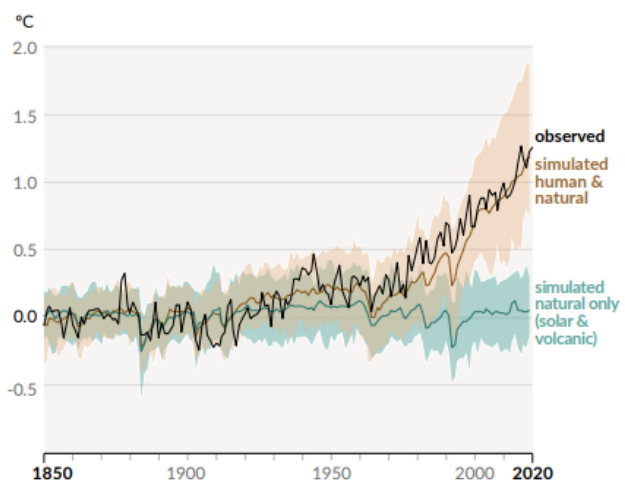
[차트1] 인간의 영향력으로 인해 지구의 온도 상승이 훨씬 심해졌음을 나타내는 AR6 보고서의 그래프. 뿐만 아니라 현재 극한 기상 현상의 주요 인자가 인간이라는 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온난화 진행 가능성 상승 등의 내용을 언급

Changes in global surface temperature relative to 1850-1900

a) Change in global surface temperature (decadal average) as reconstructed (1-2000) and observed (1850-2020)



b) Change in global surface temperature (annual average) as observed and simulated using human & natural and only natural factors (both 185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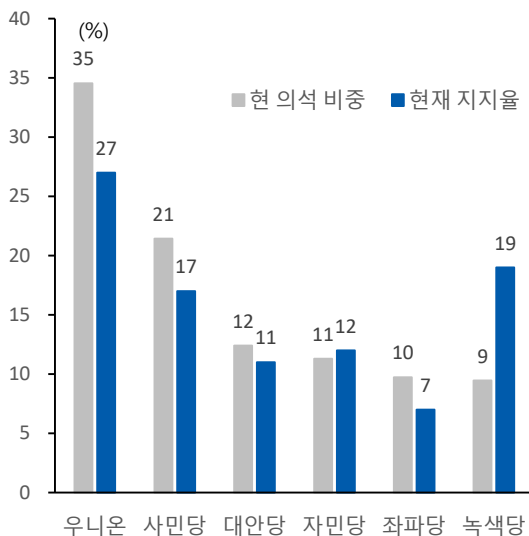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독일 녹색당의 선전

유럽 전체의 정책 방향성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일의 총선이 9월 26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메르켈 총리의 후임이 선출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녹색당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사전적으로 관심을 끄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은 그간 유니온(Union)이라고 부르는 기민/기사연합(CDU/CSU)이 제 1여당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지난 19대 의회에서는 유니온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2위를 차지한 사민당(SPD)와의 대연정을 통해 의회를 꾸려온 상황이다. 녹색당은 현재 독일 의회에서 67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어 9% 정도의 의석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일부 군소 정당을 제외하면 주요 정당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의석 수이다. 하지만 최근 여론 조사 결과는 위상이 사뭇 달라진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5월에는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25%까지 높아지면서 24%인 유니온을 역전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지금은 지지율이 다소 낮아지면서 19% 수준이지만, 전체 정당 가운데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여론 조사가 선거까지 유지될 경우 녹색당은 더 이상 군소정당이 아닌 제대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요 정당의 위상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녹색당의 정책 기조는 전통적인 좌파적 분배보다 자연과 환경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기존 유니온에 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차트3] 5월 대비 녹색당 지지율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현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지지율 2위의 주요 정당에 등극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녹색당이 언급하고 있는 주요 선거 공약. 환경 측면에 있어 적극성 제고는 분명한 보임

분야	주요 공약 내용
투자/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매년 500억 유로 공공 투자 - 공공 투자에 대해서는 제정 적자 비율 규정 면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내 자동차, 2030년 이후 전기 차만 허용 - 23년 부터 즉각 CO2 배출 1t 당 60 유로 세금 부과 - 환경부 권한 확대 개편. 환경부 장관에게 모든 정책에 대한 거부권 부여 - 미국과 기후 정책 공조 강화 - 유로존 그린딜 목표 상향 조정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부유세 도입 - EU 최저 법인세 25% 부과 - 디지털세 도입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ARK ETF와 ICLN ETF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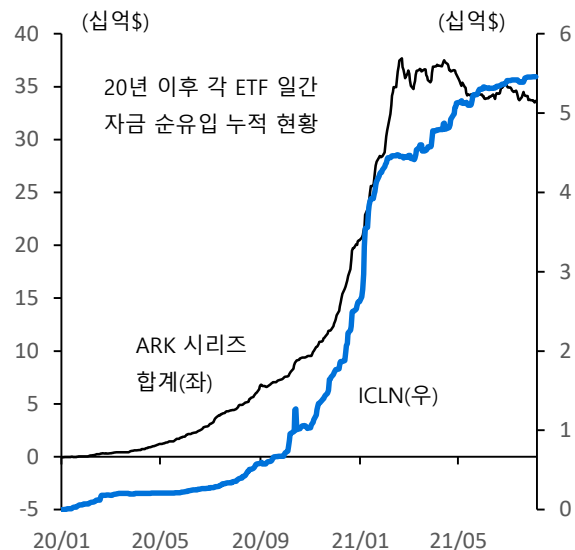
지난 해 미국 증시에서 가장 각광을 받은 ETF로 ARK 시리즈가 있다. 이노베이션, 넥스트 제네레이션 인터넷 등의 시리즈가 있는 ARK invest사의 ETF들은 신성장 산업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격적인 스타일의 ETF이다. 한편 지난 해 이들 못지 않은 성과를 보인 유형이 또 있는데 바로 친환경 ETF이다. 유럽 정책 모멘텀과 미국 블루 웨이브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주들이 신성장 산업으로 각광을 받았다. 사실 [차트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난 해 이후 ARK 시리즈와 대표적인 친환경 ETF인 ICLN(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의 주가 추이는 거의 유사한 모습이다. 흥미로운 점 한 가지가 눈에 띈다. ARK 시리즈에 대한 자금 유출입 동향과 ICLN ETF의 자금 유출입의 최근 동향을 비교해 보면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ICLN은 부진한 주가 흐름에도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 ARK 시리즈는 YTD 수익률 측면에서 오히려 ICLN보다 우위에 있지만 자금은 조금씩 유출되는 모습이다. 사실 두 유형 모두 PER과 같은 전통적인 판단 기준에서 볼 때 편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본다면, 서로 다른 성장주에 있어 안정성, 지속성에 대한 확신이 환경 부문에 조금 더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듯 하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정책이라는 명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해 보인다.

[차트5] 지난 해 괄목할만한 수익률을 보였지만, 올해 함께 고전하고 있는 ARK 시리즈와 친환경 테마 ETF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ARK가 우위지만 자금 유입 관점에서 보면 환경 부문에 보다 강한 확신이 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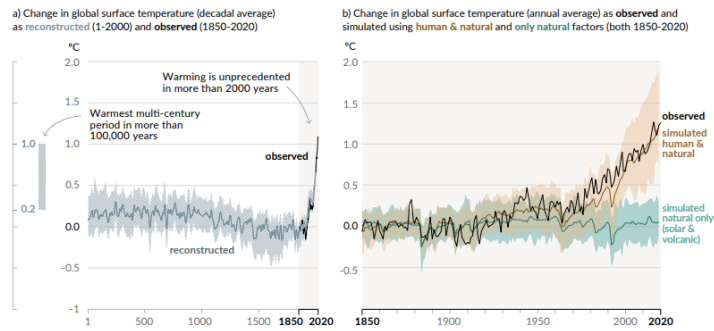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ey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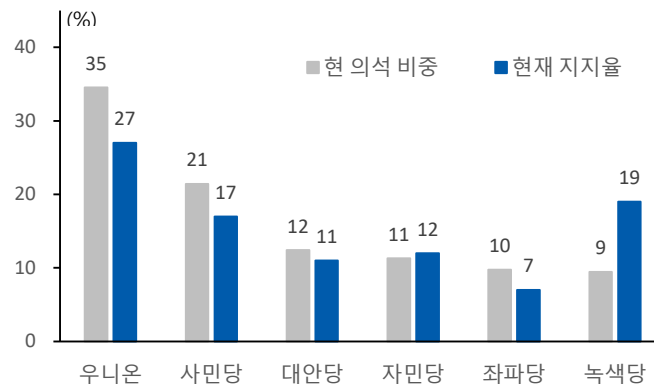
인간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심각해 지고 있다는 IPCC의 평가

Changes in global surface temperature relative to 1850-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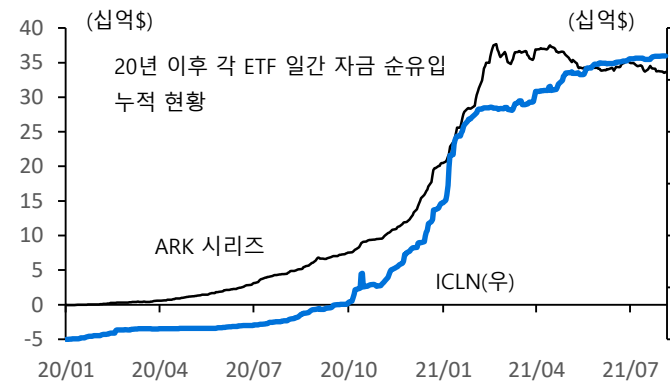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독일에서 녹색당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RK 보다 ICLN ETF에 대한 자금 흐름이 안정적임 모습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